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축사의 부속시설로 인정

별도 농지전용 허가없이 설치, 운영 가능

주의로 조정을 하였지만 봄철 산발적 발생에 대비하여 주요 방역조치를 연장하여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체계를 3월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야외철새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있으며, 3~4월에도 발생한 사례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

방역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방역시설을 축사부속시설로 인정해 달라는 축산농가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농장 운영의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축사의 부속시설’로 인정받음에 따라 별도 농지전용 허가없이 설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법』에 따라 축산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이 『농지법』 상 ‘축사의 부속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 전용시설에 해당되어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대상이 되어오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본회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므로 부속시설로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해 왔다. 또한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시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축산 농가들이 별도 허가없이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역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각종 규제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로 향후 현실적이지 못한 타 규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년 찾아오는 시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반(방역시설 등)이 하나씩 마련되어 질병없는 대한민국 양계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횡포

정부도 닭고기 할당관세 수입 부추겨 원인제공

국내 육계 가격이 예년보다 높게 형성되었던 지난해 국내 닭고기 대신 싼 외국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오히려 제품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도마위에 올랐다. 가뜰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육계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국내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중 하나인 bhc는 지난해 5월부터 국내산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자 닭고기 원료를 브라질 산으로 대체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싼 가격의 닭고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에는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을 이유로 오히려 국내산 제품과 함께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타 경쟁사들도 일부 메뉴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써 왔지만 작년 하반기 인상에 동참하지는 않아 대조를 보였다. 브라질산 수입 냉동육 가격은 국내산 닭고기의 3분의 1 수준에서 반값으로 싸게 들여오고 있다.

여기에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을 허용한 정부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 한해 닭고기는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인 23만1천 톤이 수입됐다. 이는 전년(18만 8천톤) 대비 22.7% 증가한 물량인데 정부가 물가안정 명목으로 닭고기 할당관세(무관세)를 추진해 온게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경연에서 발표한 '24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평년 닭고기 지급률은 86.9%인데 '23년은 77.0%로 평년 대비 11.4%가 하락했다. 이는 전전년(82.8%)과 대비해서도 7.0%가 하락한 수치로 지급률이 80%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금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1월에 1.5만톤이 수입되었고, 3월까지 추가로 1.5만톤이 수입될 예정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 닭고기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가 수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정책으로 수입업자는 물론 이를 사용하는 회사들의 잇속만 채워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산지가격은 그대로인데 닭고기 가격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다. 이제는 치킨 1마리에 2~3만원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원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보다 저렴하게 닭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이며,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양계**